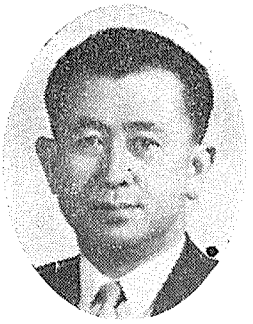

科總의 使命

西江大學校 副總長 崔 相 巢

科學技術系 각學會와 團體로 구성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科總)는 그 使命이 무엇이며 또한 왜 育成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비단 科學界와 技術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現在 우리 나라는 80년대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高度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야 하겠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工業化作業 특히 重化學工業의 발전을 차질없이 이룩하여야 할 時點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 時點에서 國民 全體가 科學技術의 革新이라는 國家至上目標를 향하여 깊은 理解와 충분한 協助로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科總이 지녀야 할 使命과 役割은 실로 莫重하다고 생각한다.

科總이 어떻게 하여 그 役割을 다할수 있고 또한 어떤 方法으로 그 力量을 발휘할수 있을까? 이를 위한 요건이 하나둘이 아니겠지만 本人은 여기서 다음의 몇가지를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1) 人力開發

科總은 科學技術 人力開發에 있어서 큰 役割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工業化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科學技術人力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人力需要를 量的인 면에서 원활히 충족할 필요가 있다. 同時에 質的으로 우수한 人力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수의 人材를 養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충분한 實力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質的으로 우수하고 量的으로 충분한 수의 科學技術人力의 供給責任이 一次的으로는 각급 학교에 있다고 하겠지만, 短期 人力需給에 있어서 大企業體 또는 기타 公共機關에 短期 職業訓練機構를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각 學會나 科學技術團體가 이 방면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고 또 科總은 이것을 綜合的으로 추진하는 中樞的인 役割을 다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2) 産學協同

現代의 工業技術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生産界와 學界의 유대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先進外國으로부터 導入한 技術의 消化改良은 물론이고 新技術開發을 위하여 産學協同이 적극적으로 이룩되어야 하겠다. 각 大學, 硏究機關 또는 生産業體가 각기 獨自的인 硏究開發業務에 최대한의 投資와 努力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은 더말할 나위도 없겠으며 生産業體와 大學 乃至 硏究機關 사이에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科學技術 관계 각 學會와 團體는 그 교량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고 또 科總은 産學協同의 體系化에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硏究開發活動의 강화는 科學技術의 底力을 축적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硏究開發을 담당할 頭腦의 개발은 앞날의 발전을 가져오는 絶對的인 요건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硏究機關의 강화와 大學 특히 大學院의 育成은 時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 生産業體는 自體內의 開發業務를 촉진하는 한편 産學協同을 통한 硏究開發에 대하여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 교량역할을 科總이 담당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3) 科學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오늘날 科學技術에 관한 새 知識은 量的 폭발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팽창은 앞으로 더욱 加速되리라고 본다. 방대한 科學技術情報를 수집 교환하고 이를 올바르게 活用 普及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中央에 설치되어 있는 科學技術情報센터와 國立科學館의 기능이 일층 강화되고 또 必要에 따라 地域別로 科學技術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각 學會와 團體는 큰 役割을 담당하여야겠지만 科總도 또한 여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對政府建議의 役割

위에서 言及한 몇가지는 敎育機關, 硏究機關 및 生産機關이 科學과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각기 獨自的인 役割을 다하고 또 각 기관 사이의 協助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각 專門學會 乃至는 科總이 담당해야 할 責任과 使命에 관한 것이다. 科總은 각 기관 또는 學會 사이에 교량역할을 다하여 科學技術界의 全力量을 한 점으로 總集結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一般國民들이 科學과 技術을 숭상할줄 아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하겠고 또 科學知識의 啓蒙을 통하여 全國民의 科學化라는 汎國民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科總은 선봉적 역할을 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科總의 使命中 가장 큰 것은 政府에 대한 建議機構로서의 기능이라고 본다. 外國技術의 導入과 事後管理에 철저를 기하는 同時에 新技術開發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科學技術人力을 有効하게 活用하고 그들의 能力과 근무성적에 상부하는 우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科總은 큰 役割을 담당하여야 하리라고 믿는다. 科總은 政府當局에 대하여 政策的인 면에서, 制度的인 면에서 그리고 財政的인 면에서 적절한 배려와 支援을 促求하는데에 봉선적인 使命을 다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